

Time



Ho Tzu Nyen

the

cloud

호추니엔:
시간과
클라우드

2024.
6.4.
- 8.4.

공동주최
아트선재센터,
싱가포르아트뮤지엄

전시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품제작지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A

SJ

C

아트선재센터는 싱가포르 작가 호추니엔의 전시, 《호추니엔: 시간과 클라우드》를 개최합니다. 20년에 걸친 호추니엔의 작업 세계를 밀도 있게 다루는 이 전시는 동시대 아시아의 복잡한 근대성의 층위를 지리적 국가적 경계를 넘어, 사회 문화 정치 경제를 가로지르는 호추니엔의 작업세계를 탐구합니다.

《호추니엔: 시간과 클라우드》는 작가의 작업세계를 <미지의 구름>(2011), <호텔 아포리아>(2019), <시간(타임)의 티>(2023-2024)등 3점의 작품을 중심에 놓고,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작품들은 동시대 아시아인의 삶과 그 현재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자 그 해답을 찾아가는 작가의 광대한 여행입니다. 이 작품들은 일상-정치/문화-시간으로 이어지는 작가의 근대성에 대한 탐구를 집중적으로 드러냅니다. 작가는 서구와 아시아, 아시아와 아시아, 제국과 식민지, 식민지와 식민지가 만나고 충돌하며 형성되는 새로운 공간으로써 아시아의 현재를 연구합니다. 작가의 이러한 탐구는 이분법적 대립 구조를 넘어, 수많은 다양한 근대성이 충돌하고 부서지며, 그것을 이해하면서도 오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생성하고 확장하는 아시아의 현재를 드러냅니다.

이번 전시에서 ‘클라우드, 구름’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클라우드, 구름은 하늘에 떠 다니는 자연 현상으로써 구름을 의미하기도 하며, 신화적이고 영적이며 종교적인 상징물이기도 하고, 모호하고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대상이기도 하며, 미술에서 화면을 나누는 시각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액세스 할 수 있는 서버와 이러한 서버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작가에게 클라우드는 이미지를 드러내기도 감추기도 하는 빈 화면, 스크린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구름의 의미는 작가 호추니엔의 작업세계를

관통하며, 그의 세계관을 개념적으로 물리적으로 미학적으로 작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전시는 아시아에서 근대적 경험에 대한 경외와 감탄, 환상과 공포, 희망과 좌절이 동시대 사회 문화 속에서 여전히 유령처럼 부유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제국주의의 여파와 식민주의의 경험,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의 현재와 모순적이지만 해학적인 상황들은 전시장에 펼쳐지며, 다양한 근대성들이 충돌하고 오해하며, 전유하고 다시 화해하면서 만들어진 우리의 현재가 광대한 우주적 시간의 흐름 속에 펼쳐지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호추니엔은 제국주의적 근대성이 야기한 파국인 식민주의를 피식민자로서 관통한 많은 아시아의 역사를 탐구하면서, 아시아가 제국주의적 근대성이 야기한 힘의 논리와 어떻게 교섭하고, 그것을 전유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며, 자신의 시간성을 발명하고 있는지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2022년 아트선재센터와 싱가포르아트뮤지엄은 엠플러스 홍콩과 협력하여, 도쿄도현대미술관, 샤프자미술재단,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호추니엔의 예술 세계를 탐구하고, <시간(타임)의 티(T for Time)>을 공동 제작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이 공동 작업은 두 가지 버전의 전시, 《호추니엔: 시간과 호랑이(Ho Tzu Nyen: Time & the Tiger)》(2023.11.24. - 2024. 3. 3., 싱가포르아트뮤지엄), 《호추니엔: 시간과 클라우드》(2024. 6. 4. - 2024. 8. 4., 아트선재센터)로 이어졌습니다. 이 두 전시는 아트선재센터와 싱가포르아트뮤지엄의 협업의 서로 다른 결과물이며, 동시대 미술에 집중하는 아시아 두 미술기관의 새로운 협업모델의 결과물입니다.

호추니엔

호추니엔(b.1976)은 역사적, 철학적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싱가포르의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영화감독입니다.

<동남아시아 비평사전>을 비롯한 일련의 작업들은 서구의 변증법적 역사관에서 획일적으로 치부되어 온 동남아시아, 나아가 아시아의 개별적 문화 정체성과 독특한 근대성을 논합니다. 작가는 순차적 재생이 아닌 알고리즘으로 재생되는 영상작업을 통해 역사의 단일한 시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과거와 현재가 중첩, 충돌되며 파생되는 아시아의 다차원적 시공간을 다룹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에이전트의 A》(도쿄도미술관, 2024), 《호추니엔: 시간과 호랑이》(싱가포르아트뮤지엄, 2023), 《보이스 오브 보이즈》(일본 야마구치 정보예술센터, 2021), 《미지의 구름》(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2015) 등이 있으며, 주요 그룹전은 《밤의 세헤라자데》(팔레 드 도쿄, 파리, 2022), 《상상된 경계들》(제12회 광주비엔날레, 2018), 《아시아 연결하기》(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홍콩, 2014) 등이 있습니다.

작가는 2011년 제54회 베니스비엔날레 싱가포르 파빌리온 대표 작가였으며, 대만 작가 슈 차 웨이(Hsu Chiawei)와 제7회 아시아미술비엔날레 《산과 바다를 넘어온 이방인들》(국립대만미술관)을 공동 기획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베를린 DAAD 장학금을 받았고, 2015년 APB 재단의 시그니처 예술 대상을 수상했으며, 2024 샤넬 넥스트 프라이즈를 수상했습니다.

상영안내

- 총 상영길이: 80분
- 상영시간: 12시 10분 부터 18시 50분까지 순차 상영.
- 상영순서: <뉴턴>, <지구>, <골드>, <미지의 구름> 순.

미지의 구름, 2011

단채널 프로젝션(16:9포맷), 컬러, 5.1 서라운드 사운드, 28분.

싱가포르아트뮤지엄 컬렉션

14세기 기독교 신비주의 문헌의 제목에서 따온 이 작업은 싱가포르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주택 단지에서 단조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8명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름은 그 거주자들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첫 대면에서 두려움에 구름과 대결하지만, 종국에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능성은 영원하지 않고 순간적이며, 영적이고 신비로운, 초현실적인 경험입니다. 언뜻 단순해 보이는 이 작업은 구름이 갖고 있는 다양한 동서양의 문화사적 의미를 뒤섞으면서, 무기력해 보이는 삶의 평범함을 초극하려는 강력한 에너지를 뽐고 있습니다. 구름은 다면적인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구름은 일상에 지친 주인공들을 방문하는 낯선 자이기도 하며, 주인공들 사이 또는 주인공들과 (다른) 세계 사이에서 등장하는 신비한 존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작품 제목에 영감을 준 기독교 신비주의 문헌으로 되돌아가 본다면, 우리와 신 사이에 놓인 것은 어둠이 아니라 신을 맞이하게 하는 어떤 것, 즉 ‘미지의 구름’입니다. 따라서 미지의 구름은 우리를 휘감는 특정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들의 총체적 데이터 베이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 영상작업의 미장센은 틴토레토, 카라바지오, 베르니니, 르네 마그리트와 같은 서유럽 작가들의 회화작업 뿐만 아니라, 미불, 문징명과 같은 송, 명 시대 산수화 등을 차용했습니다.

미지의 구름 The Cloud of Unknowing, 2011

Single-channel HD projection (16:9 format, color, and 5.1 surround sound, 28 min).

Direction, edit, sound design: Ho Tzu Nyen

Production: Fran Borgia

Cinematography: Amandi Wong

Production design: James Page

Art direction: Jed Lim

Assist direction: Ong Chao Hong

Assist art direction: Andy Phua

Art department assistant: Russell Morton

Make-Up + hairstyling: Haslina Ismail

Cloud Hair design: Kizuki + LIM

Project management: Stephanie Goh

Additional lighting design: Andy Lim

Show-control, sound design, audio engineering: Jeffrey Yue

Additional sound design: Yasuhiro Morinaga

Additional music (drums): Zahir Sanosi

Cast:

The Actor: Johnston Anderson Cheong

The Scriptwriter: Remesh Panicker

The Sound Designer: Haslina Ismail

The Editor: K. Rajagopal

The Producer: Andy Hillyard

The Set Designer: Helen Chan

The Composer: Zahir Sanosi

The Director: Nick Ng

이 프로젝트는 준 압이 기획한 제54회 베니스비엔날레(2011)의 싱가포르 파빌리온을 위한 작품으로 싱가포르 국가예술위원회의 커미션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모리아트뮤지엄의 제작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골드, 2009-2013

단채널 영상, 스테레오 사운드, 1분 49초.

피아니스트 글렌 골드의 이름을 따온 이 작업은 어둠속에서 아시아계 알비노가 피아노 연주에 몰두하여 머리를 심하게 흔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입니다. 그러나 그의 백색 머리 위에는 하얀 손이 놓여있어 그는 하얀 손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처럼 보이며, 한편 피아노 연주를 연기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유전학적으로 돌연변이인 백인 아닌 백인이 서구 근대적 악기의 결정판인 피아노를 하얀 손에 의해서 조종되며 연주하는 듯한 모습은 다양한 맥락을 함축합니다. 온전한 인간이라는 백인에 대한 신화는 돌연변이로 변형되며, 신의 전능과 같은 하얀 손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의 논리이거나, 신의 전능을 위장하는 카모플라주가 됩니다. 이러한 영상 작업에 작가는 20세기 천재 피아니스트이자 예외적이고 기형적인 길을 걸어간 연주자 글렌 골드의 성을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골드 GOULD, 2009-2013

Single channel HD video, stereo sound, 1 min 49 sec.

Direction, edit: Ho Tzu Nyen

Production: Fran Borgia

Cinematography: Amandi Wong

Production Design: Patrick Storey

Sound: Ho Tzu Nyen

Cast: Johnston Cheong

뉴턴, 2009

단채널 영상, 스테레오 사운드, 4분 16초.

근대과학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시계장치 우주론 개념을 설립한 아이작 뉴턴의 이름을 따온 이 작업은 백색증을 가진 아시아계 남성이 과학적 탐구와 유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행동은 하늘에서 빈 공책이 떨어져 그의 머리에 부딪히면서 시작됩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빈 공책은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맞고 중력 이론을 발견했다는 (정확성은 의심스러운) 유명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깨달음의 순간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유와 실천을 코믹하게 보여줍니다. 백색의 배경 속에서 유전적 돌연변이인 아시아계 알비노에 의해서 수행되는 이러한 탐구행위는 백색과 근대성의 신화에 대한 풍자적 논평으로 작용합니다.

뉴턴 NEWTON, 2009

Single channel HD video, stereo sound, 4 min 16 sec.

Direction, edit: Ho Tzu Nyen

Production + Edit: Fran Borgia

Cinematography: Amandi Wong

Production design: Patrick Storey

Sound design: Matthew Koh, Lim Ting Li

Cast: Johnston Cheong

지구, 2009-2011

단체널 영상, 5.1 서라운드 사운드, 42분.

싱가포르아트뮤지엄 컬렉션

정지된 듯한 화면에 50명의 인간들이 삶과 죽음 사이에 놓여진 것 같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재난의 현장을 묘사하는 듯한 영상 작업, <지구>는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지만, 빛과 어둠, 낮과 밤,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미지들이 화면 속에 느리게 부유합니다. 대부분의 이미지들은 서양 미술사의 주요 회화를 차용했습니다. 시각 연구자라고도 할 수 있는 호추니엔은 작업과정에서, 작업의 주제와 연관된 미술사의 회화를 포함한 다양한 시각 자료를 찾고, 그것을 재해석하고 변형시켜 자신의 작업에서 새로운 맥락과 의미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구>를 위해서 참조한 주요 회화는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 (1818-1819), 카라바지오의 <성 토마스의 의심> (1601-1602)와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c. 1610), 앤 루이 지로데 트리아종의 <엔디미온의 잠>(1791) 등입니다. 작가는 이러한 기존의 시각 자료를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원본이 갖는 의미와 도상, 맥락을 자신의 연구 주제로 전유시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합니다. 서구회화에서 이미지와 신체, 그리고 사건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탐구로 시작된 이 작업은 중국에는 모든 사건과 신체들이 뭉개지고, 잔해만 남겨진 기괴한 풍경을 만들어 냈습니다. 작가가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 지라도 이 작업은 대재난 이후, 지구의 묵시론적 풍경화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면할 미래의 현재를 함축합니다. 이 작업은 본래 무성영화로 제작되었지만, 다양한 버전의 사운드 트랙으로 상영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블랙투컴’ 사운드 트랙 버전의 <지구>가 상영됩니다.

지구 Earth, 2009–2011

Single-channel HD video, 5.1 surround sound, 42 min.

Direction, edit: Ho Tzu Nyen

Production, edit: Fran Borgia

Cinematography: Amandi Wong

Additional lighting design: Andy Lim

Production design: James Page

Music: Black To Comm, Featuring Vindicatrix and Renate Nikolaus

Cast: John Low, Erik Wayne Goh, Andy Hillyard, Paul Lucas, et al

관람 안내

아트선재센터

관람시간

화요일-일요일 오후12시-7시

월요일 휴관

관람료(전시 통합권)

10,000원: 25세-64세

7,000원: 19세-24세, 65세 이상, 예술인패스 소지자

5,000원: 9세-18세

무료: 그 외 연령 및 장애인, ICOM·CIMAM·서울시미술관협의회 카드 소지자
관람권 예약은 아트선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733-8949 | artsonje.press@gmail.com

홈페이지 www.artsonje.org

주소 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3길 87

© 2024. Art Sonje Center all rights reserved.

이 출판물에 수록된 글에 대한 저작권은 아트선재센터에 있으며, 출판권은 아트선재센터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